

교 당 소 식

◎ 단 모임을 안내합니다.

17단 정보전산실(6월 5일, 화) / 18단 과학관(6월 8일, 금)을 초대합니다.

- 12시에 교직원식당에서 식사 후, 귀빈실에서 차 공양이 있습니다.

- 오실 때에는 부서 조직도(사진포함)를 함께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선 번호 기재)

◎ 만인동참 보은 장학금 전달 법회

6월 11일 법회는 만인동참 보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법회로 진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학이념 실천이 우수한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 교당운영위원회

2018학년도 1학기 교당운영위원회가 6월 22일 금요일 12시 20분에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교당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종강 안내

매주 (화)~(금) 오전 8시 20분 대학선방(승산기념관2층)에서 학교의 발전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안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기도는 6월 22일(금)까지 합니다.

◎ 서타원 박청수 교무 다규 상영 안내

세계 55개국에서 무지·빈곤·질병을 퇴치하고 큰 살림, 하늘 살림한 여인 서타원 박청수 교무의 다큐멘터리 “세상 받든 이야기”를 상영합니다. 관심있으신 교직원 여러분들은 참석하시어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장소 : 6월 10일(일) 오후 2시, 4시 학생회관 대강당

6월 11일(월) 오후 2시, 5시 30분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

- 금액 : 무료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교서 정산종사법어‘경륜편’1-33장(p487-505)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5월 28일 이후)

김종현, 배승규, 이강래, 이채산, 임규상, 장환

합계 : 25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

교당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52호

원기 103년 6월 4일 첫째주



- 타자녀 교육 -

1.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관이 편소(偏少)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自他)의 국한(局限)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後進)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同胞)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2.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

- ①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음이고,
- ②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음이고,
- ③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음이고,
- ④ 언론과 통신 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음이고,
- ⑤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有産者)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라.

아이가 몇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역 표시를 하거나 영역을 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가족, 내 학교, 내 고향, 내 나라, 내 민족, 내 직장, 내 종교, 내 또래 등.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인연인 것이지요. 자녀란 ‘대물림’할 나의 자손입니다. ‘내 집 대물림’에 한정짓지 않고 ‘세상의 대물림’에 관심 갖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으며 가르치고 기르는데 후원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타자녀교육(他子女教育)’이 지향하는 마음입니다.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교육은 “문명을 촉진시키고 낙원생활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명이 지체하는 원인으로 “교육의 기관이 편소(偏少)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自他)의 국한(局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시고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後進)을 두루 교육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면 당연히 여길 ‘자녀교육’ 앞에 “타”를 붙였습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를 없애라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 “아이가 몇이에요?”하고 물을 때 울안의 아이들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 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우리나라 1948년에 제정된 제헌 헌법 1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차 개정에 이른 현재 헌법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결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먼 단위 소재 고등학교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단(敎團)에서나 사회·국가·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어려서 동화책을 통해 알게 된 페스탈로찌. 스위스의 교육자이지요.

그의 가르침은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표가 되고 있지요.

우리 대학도 개교기념식 때 공적에 따라 표창도 하고, 공적이 크신 분은 기념상을 조성하고 있지요. 우리 각자도 학교에서 임하는 마음이 타자녀교육 정신을 놓지 않고 있는 지 늘 대조하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자녀도 내 자녀같이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져서 함께 사는 세상이 낙원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 회 식 순

사회 : 유지원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례자
개 회		사회자
입 정		다함께
월초기도	영주/기원문/묵상심고/독경	주례자
법 어 봉 독	타자녀 교육의 조목	다함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함께
설 법	“아이가 몇이에요?”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다함께
성 가	62장 『세상에 흥망이』	다함께
공 고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 회		사회자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월요법회	(월) 09:00	대법당	법심향	(수) 12:00 3학년	법전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학선방	원악회 [악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학생회	(월) 17:30	동아리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요선방	(목) 12:00	대학선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